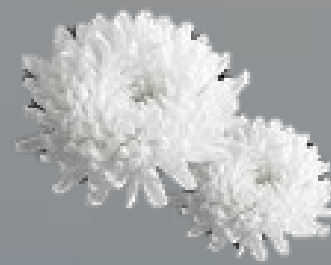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6호

2025.05.02

21대 대통령선거 국가문화정책 토론회
제1차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JTBC 사건반장 보도

"맞다가 기절해도 때려" 태권도 코치, 여고생 선수 '무차별 폭행'

장영준 JTBC 기자

한국 체육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

한국, 기초 체육의 중요성을 다시 묻는다

이정세 (사)서울이코노미포럼 미디어위원장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애 차별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규정, 중대한 경우 지도자 자격 취소

이슬기 에이블뉴스 기자

스포츠개혁위원회, 4월 17일 공식 출범

김로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장 “공정한 체육환경, 신뢰회복이 우선”

이재호 스포츠한국 기자

“운동하는 학생들이 학습을 포기하는 구조는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운동하는 학생, 공부도 병행해야...”

육군영 뉴스티엔티 기자

화성시체육회 차별시대착오적 대회

엄마아들 2인가족에 ‘가족란’ 참가자격 안 주는 ‘차별 마라톤’

정인선 한겨레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1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성명서

스포츠하는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책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한국 스포츠계가 늘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4월 29일, JTBC를 통해 보도된 태권도 종목 학교운동부 코치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스포츠폭력은 지도자 개인의 인성 문제이거나 음주가 원인이 된 심신미약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에만 매몰된 우리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에서 항상 직면하는 한국 스포츠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가해자인 태권도 코치가 저지른 만행은 학생선수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자 소유물로 취급하며, 비교육적 합숙소에서, 비교육적 관리방식으로 인권을 유린한 전형적인 한국 학원 스포츠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인권침해는 ‘현장’의 문제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규정의 미비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 정책과 규정들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소년체전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의 실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의 인권유린의 위험성을 세세하게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숙소문제는 심각했다. 지역의 유스호스텔과 같은 청소년 숙박시설이 텅텅 비어있음에도 유흥가가 밀집된 장소에 위치한 러브호텔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숙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샤워실, 성인방송 노출, 타 숙박객의 소음문제 등)는 물론 미성년자임에도 선수와 동성인 보호자가 동반하지 못하는 관행, 인근 유흥가에서 벌어지는 지도자들의 음주 등 수많은 현장의 모습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소선정의 이유가 지도자의 유흥 편의성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체육계는 여전히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재확인된 바와 같이 야심한 밤 경기대회 합숙소라는 공간에서는 지도자가 음주를 즐기고 돌아와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사적인 공간에 마스터키를 사용해 무단으로 침입하면서 벌어졌다. 미성년 여학생들은 옷매무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어야 할 지도자로부터 어떤 보호조치도 없는 무방비의 상태에서 비극을 맞았다. 지도자는 상처를 은폐하기 위해 파우치로 주먹을 감싸고, 더 강하게 때리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쥐었다.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지도자의 야만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다음 장 계속

태권도의 ‘인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해자의 야만적인 행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도저히 보다 못한 동료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의 저 멀리에서는 ‘맞을 짓 했겠지’라는 다른 태권도 지도자들의 방관과 비아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의와 범절을 중시하는 국기 태권도의 인성부재와 비인권적인 지도자 양성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개혁의 시점이 도래했음을 반증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판례분석”에서도 나타난바 태권도는 생활체육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성폭력, 폭력 사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많은 수련인구 탓에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 아니라, 태권도 교육에서의 인성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태권도인들의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통한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야 우리는 생존자를 지켜줘야 한다!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인권침해 구제기관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좌절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언론제보를 택했다. 피해자들의 이 같은 선택은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기를 각오하고 내린 용기이자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피해자가 죽지 않아 다행인 이 사건에서 앞으로는 이들을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 불러야 함이 당연하다. 2020년 지도자와 트레이너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세상을 등진 고 최숙현 선수는 피해를 당한 후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우리 사회는 이전 사건의 생존자가 다시는 이런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생존자의 진학과 청춘을 파탄 낸 가해자는 엄정한 단죄를 통해 재발 방지는 물론 생존자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스포츠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유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국가는 한국 사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릇된 스포츠문화를 직시하고, 청소년들의 모든 스포츠 경쟁이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된 형태가 아니라 교육적 활동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스포츠 등 관련 역량을 모두 집중하라!

문체부 장관은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스포츠 현장 여기저기에 묻혀 있는 가해자를 색출하고,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라!

대한체육회장은 엘리트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승리지상주의적 경쟁문화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대한태권도협회장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태권도 지도자 양성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라!

2025년 4월 30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2025.0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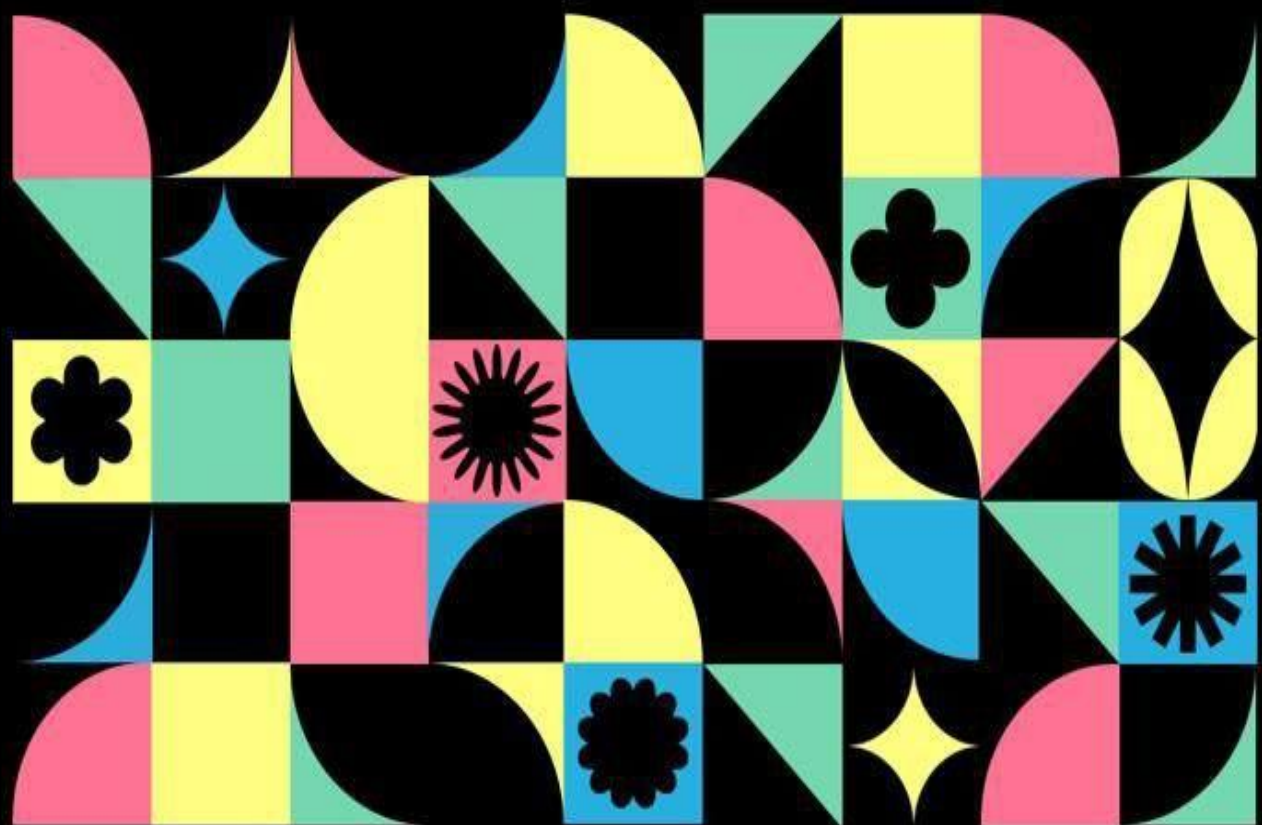
21대 대통령선거 국가문화정책 토론회

제1차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개최

21대 대통령선거,

국가문화정책 토론회

05.02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오후 2시



국가문화정책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사 회] : 유사원 (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

[좌 장] : 양현미 (상명대학교 교수)

[기조 발제] 국가문화정책 대전환의 방향과 혁신 과제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표·토론] 예 술 :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지역문화 : 손동혁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지식문화 :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이사장)
콘 텐 츠 : 유창서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스 포 츠 :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관 광 : 심창섭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 1차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초 대 장

—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새로운 거버넌스와
선도적인 방향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희망찬 논의의 장,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대표 조준용 올림

주최 및 주관 김준혁 의원실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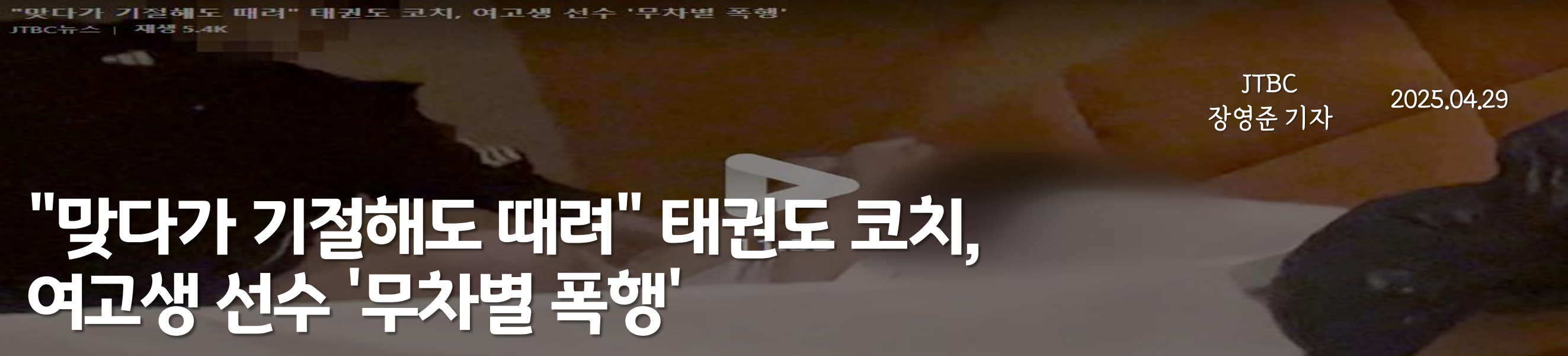
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문의 주성택 (010-9622-9201)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추진위원회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강유정·박수현·이기현·임오경·조계원 의원



"맞다가 기절해도 때려" 태권도 코치, 여고생 선수 '무차별 폭행'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전국대회를 하루 앞둔 여고생 선수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코치의 폭행에 시합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오늘(29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제보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지난달 28일 지방 대학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지역 숙소에서 머물던 중 코치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당시 숙소에는 학생들이 2층과 5층으로 나뉘어 방을 배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2층에 배정된 3학년 학생이 '담배 냄새가 심하다'며 '방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코치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다른 코치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와 마스터키를 이용해 5층 숙소로 침입했고, 방 안에 있던 학생 3명을 폭행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코치는 보조배터리를 손에 쥔 채 피해 학생을 침대에 눕히고 얼굴 등을 세게 가격했습니다.

당시 학생은 샤워 가운만 입은 상태였고, 폭행 도중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맞다가 중간에 기절했고, 얼굴이 너무 아파서 깨어났는데 그때도 코치가 계속 때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은 피해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까지 이어졌고, 이를 들은 다른 코치들이 방에 들어와서야 멈췄습니다.

코치는 학생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방을 옮겨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에도 코치는 학생들에게 "맞은 게 억울하냐. 너희가 잘못해서 맞은 것"이라며 "X발, X 같으면 지금 신고해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시합을 못 뛰겠다는 학생들에게 "나도 많이 때려서 주먹이 안 쥐어진다", "시합 뭘 필요 없으니 뛰지 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제보자 딸은 얼굴과 어깨, 손목, 발목 등이 탈구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 학생은 유리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을 맞아 시력이 저하됐고, 치아 교정기를 낀 학생은 치아가 갈리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지난달 31일 해당 코치를 직무 배제했고, 이달 3일 경찰 신고했습니다.

코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피해 학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코치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BB탄 총을 쏘거나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여왔습니다. 운동장 300바퀴를 돌게 하는 등의 일차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딸은) 대학 진학을 위해 메달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심한 폭행에 시합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다"며 "이번 일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방송유튜브 링크

<https://youtu.be/nfxMY6hRIFM?si=xOp0bcZg-4Xnjfne>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069?sid=102>

성명서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zDSRxcI9Mu5fmRh8Vif6BMbcg0XLNJfmING5bD-VRs/edit?usp=drivesdk>

한국, 기초 체육의 중요성을 다시 묻는다



카톡 단톡에 모교 남성고 배구부가 제80회 종별배구선수권대회 우승이라고 알려줘 오래전 기억들이 떠오른다.

고교 3학년 당시 예비고사를 앞두고 (좀 웃프죠) 광주에 배구대회 결승 응원을 갔다. 심판의 억울한 판정에 3-2로 패배하고 완행 열차를 타고 돌아오는 열차에 얼마나 분풀이를 했는지...이전 선배들은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경기장을 부수었다는 전설도 들렸다. 다 추억이다!

요즘 고교배구는 취재도 가지 않고 중계는 커녕 보도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의 고교 배구, 야구, 농구는 오랫동안 엘리트 중심 스포츠 시스템 속에서 성장해왔다.

전국체전, 협회장기, 대통령배, 춘계·추계 리그전 등 각종 대회를 통해 고교 팀들이 기량을 겨루며 우수 선수들은 대학, 프로, 국가대표로 진출한다. 특히 남성고(배구), 대구고(야구), 용산고(농구) 등은 명문 고교로 꼽히며 오랜 전통과 족적을 남겨왔다.

한국은 전국 상위권 팀 중심, '결과 중심'의 엘리트 시스템에 더 의존

그러나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뚜렷하다. 일본은 고교 스포츠가 국민적 관심사이자, 전국적 이벤트다. 여름·봄 고시엔(야구), 봄·겨울 고교 배구대회, 윈터컵(농구)은 TV 생중계와 신문 대서특필로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선수들은 그 무대에서 프로 진출 기회를 잡는다. 또 일본 고교 스포츠는 강한 지역 연고성을 지니며, 동문·후원회·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결 속에서 성장해왔다.

반면 한국은 전국 상위권 팀 중심, '결과 중심'의 엘리트 시스템에 더 의존해 왔다. 초·중학교부터 소수 엘리트 선수를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방식은 빠른 성과를 내지만, 선수 풀의 다양성이나 저변 확대에는 약점을 드러낸다.

일본이 학교 부활동(부카츠)과 지역 클럽, 사회인 팀, 각종 생활체육 대회를 통해 선수 풀을 넓히고 기초 체육의 저변을 키워온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초 체육의 중요성이다. 오타니 쇼헤이(야구), 이리 후미야(농구), 이시카와 유키(배구) 같은 일본 슈퍼스타들은 단지 학교 시스템이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했다. 여기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조화가 큰 역할을 했다.

장기적으로 기초 체육의 힘은 일본 스포츠가 보여준 강력한 성장 동력

한국은 여전히 엘리트 스포츠 vs 생활체육의 단절을 극복하지 못한 구조다. 학원 스포츠에만 의존하면, 상위권 소수 선수들은 성장할지 몰라도 전체 스포츠 인구의 질적·양적 성장은 제한된다.

반면, 광범위한 저변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체육의 힘은 일본 스포츠가 보여준 강력한 성장 동력이다.

따라서 한국 고교 스포츠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학교 스포츠와 지역,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 엘리트 중심 시스템 개혁, 어릴 때부터 다양한 종목의 경험을 기회 제공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초 체육은 단지 메달리스트를 만드는 토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 차별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규정, 중대한 경우 지도자 자격 취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빙상,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폭행,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2022년 454건, 2023년 6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간 발생하는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의 실효성도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로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장 “공정한 체육 환경, 신뢰 회복이 우선”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 17일 공식 출범하며, 체육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 날 공동위원장 및 3개 소위 1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그 선봉에 선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김로한 스포츠개혁위원장(경희대 객원교수)이다. 그는 이번 개혁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며 체육계 쇄신의 중책을 맡았다.

김로한 스포츠개혁위원장은 “최근 체육계는 불공정한 구조, 인권 침해, 비리 등의 문제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 스포츠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에 대해 “스포츠개혁위원회에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학계와 스포츠행정의 경험을 협업하여 대한민국 스포츠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과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스포츠인들을 위한 새로운 변화, 나아가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체육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실증적이고, 비판에는 대안을 갖는’ 위원회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목표이며 우리의 미션”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김로한 위원장은 “스포츠개혁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체육계는 물론 법조계, 언론, 학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공동위원장 2인과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소위는 학교체육, 제2소위는 지방체육, 제3소위는 공약이행의 3개의 소위원회에서 스포츠개혁 과제와 회장의 공약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저는 공동위원장으로, 스포츠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체육회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프로젝트와 과업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묻자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회의에서 스포츠개혁위원회 출범이 갖는 의미와 목표, 그리고 ▲학교체육 ▲지방체육 ▲공약이행 등을 실현키 위한 9대 혁신과제와 120개 중점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소위별 회의에서는 세부 과제 부여 및 이에 대한 위원별 피드백을 받고 추후 일정 조율이 주요 내용이었다”며 “사실 위원님들도 해당 과제를 보고 난 후 모두가 문제점들을 인식하였고, 사안에 따라 시기에 맞게 계획하에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계 체육계 브레인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5월부터 보다 빠른 템포로 위원회의 운영, 프로젝트의 현안분석을 실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체육분야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2024 파리올림픽 이후 불거진 체육단체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체육과 지방체육 현장의 실상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학교체육과 지방체육이 설 자리를 잃어가면 결국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개혁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에 수행에 있어 체육단체 및 체육인과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추진 상황에 따른 소위별 과제 이행 점검과 관리도 빼놓지 않고 실행할 예정이다. 스포츠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개혁은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체육인들의 참여가 동반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새롭게 대한민국의 스포츠개혁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 김로한 위원장은 체육이 지닌 무한한 가치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에 있는 대한체육회가 새롭게 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 그것이 그가 꿈꾸는 미래이며, 유승민 회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스포츠개혁위원회가 가야 할 길로 보인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운동하는 학생, 공부도 병행해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운동하는 학생들이 학습을 포기하는 구조는 인권 침해일 수 있다”며,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25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운동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공부하는 운동부’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엘리트 체육 중심의 운동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선수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해 왔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습권 침해와 같은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정규 수업 이수 의무화 및 출결 관리 강화 ▲e-School을 통한 학습 보충 ▲클럽 기반의 지역형 학교 운동부 운영 ▲스포츠 인권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활용해 출결 상황도 확인된다.

또 대회나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결손이 생긴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e-School도 운영하고 있다.

최 교육감은 “운동만 하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학교가 학생선수에게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인권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 커플런은 신청은 남녀 혼성으로만 가능합니다.

A: 남여 혼성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남남, 여여 신청은 취소 처리 됩니다.

엄마·아들 2인가족에 ‘가족런’ 참가자격 안 주는 ‘차별 마라톤’

40대 여성 ㄱ씨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26회 화성호마라톤 대회 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그는 초등학교생인 아들과 단둘이 살지만 두 사람은 대회에서 ‘가족’으로 댈 수 없다. 5km를 함께 달리는 ‘가족런’ 부문 신청 자격이 3~5인으로 제한돼 있는 탓이다.

결국 가족런 대신 ‘커플런(2인)’ 부문 참여 신청을 했는데, 자녀가 딸이었다면 이마저도 어려울 뻔했다. 커플런 부문 자격은 ‘남녀 혼성’이기 때문이다. 대회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엔 “커플런은 남녀 혼성만 신청 가능하다. 남·남, 여·여 신청은 취소 처리된다”고 돼 있었다.

ㄱ씨는 2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가족 가운데 두 명만 대회 참여를 원할 수 있고, (구성원이 둘뿐인) 한부모·조손가구도 있는데 가족런 참가 기준을 3~5인으로 한 건 이른바 ‘정상가족’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양한 가족을 배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인권·시민단체 20여곳이 모인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역시 화성호마라톤 대회의 가족런·커플런 부문 참가 기준에 대해 차별적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대회 주최 쪽인 화성시체육회·경인일보·화성시육상연맹에 공문을 보내 “가족 구성원 수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가족런 참가 자격을 3~5인으로만 하는 건 차별 소지가 있다”며 “커플을 반드시 남녀로 구분지을 필요가 없는데 (참가할 수 있는) 커플을 남녀로 한정하고 다른 형태의 참가를 취소한다면 누군가는 배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최 쪽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어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 방식을 고수하는 대신, 변화하는 시대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참가 신청 대상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화성시체육회는 이달 9일 누리집 게시판 답변을 통해 “올해 대회는 3월11일 참가 접수가 마감돼 (기준)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회 사무국 쪽은 “지난해 3인으로만 한정된 가족런 참가 기준을 올해 5인까지 확대하는 등 시민 의견을 청취해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여러 의견을 반영해 참가자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커플런 참가를 혼성으로 제한한 데 대해선 “남성끼리 짝을 이룬 팀이 시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누리집 안내와 달리 올해 커플런 부문에 동성끼리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ㄱ씨를 비롯한 화성호마라톤 참가자 10여명은 대회 당일 “평등한 마라톤을 원한다” 같은 문구를 몸에 붙인 채 달릴 예정이다. “다른 시민들과 문제의식을 나누고 싶어서”다. ㄱ씨는 “스포츠뿐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서 한부모 가구, 동성 부부와 그 자녀 등 다양한 가족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족과 자연스럽게 섞이기보단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며 “아들이 성인이 되는 10년쯤 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스포츠 등 사회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이번 주 경남] 어린이날 행사...장애인 체육대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45449&ref=A>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 최종 선정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506010000734>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5월 9일~12일 경북 김천에서 열려

<https://dgmbc.com/article/gk6ySi0xWMX5K>

보성녹차마라톤 열려...전국 마라토너 1만명 참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4_0003099298

의왕시, '학교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687>

인하대, 복합 체육시설 '인하 스포츠파크' 개장..."주민도 이용"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2_0003162526

모교 고려대 찾은 김연아 "쇼트 프로 마치고 프리 스케이팅 시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536507>

'대전시민 생활체육 허브' 한밭문화체육센터 8일 개관식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043800063?input=1195m>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추진위원회, 2일 포럼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30100007?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